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주권 대도시 광역교통 시대 개막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동서축 완성  
국가공모 1162억 확보  
균형발전 기반 확고히

전북특별자치도가 동서축 교통망 완성과 광역교통체계 전환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전기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사진)은 지난 24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북 광역 교통망 대전환에 대해 설명하면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을 중심으로 전주권 대도시권 지정, 대규모 국비 확보, 국민 체감형 교통복지 확대까지 잇따른 성과를 거두며 전북의 공간 구조와 이동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지난 24일 전주시 하만양옥집(구 도지사 관사)에서 열린 2025년 전북형 마을문화 프로젝트 성과공유회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마을주인과 예술인등 참석자들이 이야기나무 점점식을 갖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으며 총 15개 광역교통시설 사업(2조 1,918억원 규모)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물류·교통 기반 확충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돼 군산 대야반에서 새만금항까지 48km 단선전철 건설이 본격화됐고,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새만금국제공항은 법적 쟁점으로 착공이 지연됐지만 국비 확보와 사전 절차를 병행하며 20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간선도로망 확충 역시 꾸준히 진행됐다. 국지도 49호선 동향~안성 구간이 개통됐고, 부안~흥덕 국도 건설이 착공됐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는 14개 노선이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며 중장기 도로망 구축의 틀도 갖췄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혁신도 눈에 띈다. 도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제정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서 총 1,162억원

의 국비를 확보하며 지역개발, 주택, 도시재생 분야에서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복지도 크게 확대됐다. 교통약자를 위한 '찾아가는 행복버스·택시' 이용자는 190만 명으로 증가했고, 대중교통 마일리지 환급 사업은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됐다.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성과를 교통문화지수도 전국 상위권으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전주 기린대로 간선급행 버스체계(BRT) 구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선정 등 미래 교통·도시 혁신을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와 '전북형 반합주택' 추진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과 저출생 대응에 나섰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광역교통과 주거, 도시 정책을 아우르는 이번 성과는 전북 균형발전의 실질적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1만호 기자

29일자까지 신문 쉽니다.

##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예타 통과'

한국개발연구원 예타조사 결과... 종합평가서 타당성 인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예타대상조사를 통과하며 국내 최초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 본격화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4일 완주 봉동읍 일원에 조성하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대상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북은 국가산단 예타 대상 12개 지구 가운데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사업은 수소상용차와 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수전해 설비 등 수소모빌리티 핵심 산업을 집적하는 국가산단이다. 생산과 연구개발 실증 양산 기능을 한곳에 모아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 해당 수소특화 국가산단 조성은 전체 63만6,000㎡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시설용지와 연구시설용지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한다. 수소충전소와 수소공급시설, 지원시설을 함께 배치해 산업 활동을 뒷받침한다. 주거용지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KDI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지표인 비용 대비 편익(B/C)은 1.06으로 산출됐다. 정책성과 지역내후도를 반영한 종합평가(AHP) 점수도 0.5이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수소산업 육성이 국가 전략산업으로서 정책적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함께 인정받은 셈이다. 전북자치도는 예타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를 만나 사업 필요성과 파급효과를 설명했다. 입주 수요 조사와 경제성 분석, 현장 실사 대응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완주군은 2020년 수소산업도시로 선정된 이후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에 주력해왔다. 현재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수소상용차) 등 관련 기업과 시험·인증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국가산단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향후 도는 LH 등과 협력해 국가산단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27년 국토교통부 산단단지 지정 승인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1만호 기자 · 완주=염재복 기자

### 민주 이원택 의원, 이재명 대통령 · 정청래 당대표와 '원팀'

## 힘 있는 예산 확보 · 힘 실린 정책 추진

정부 · 정당과 긴밀 협력  
전북 예산 확보로 이어져



자체를 연결하는 조정자 역할을 다하면서 새만금과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농수산, SOC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예년보다 많은 국가예산을 확보했고, 새로운 지역 사업과 정책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전북자치도 국가예산은 10조384억원으로 여기에는 피지컬 AI 플랫폼, 우주 방사선 사이클로트론 연구시설, 새만금 헬프산업클러스터,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등 대규모 신규 사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부안·새만금 지역의 현안 사업에

신안 내년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300억원 추가 확보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설농업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 첨단장비육종 기반구축사업, 가력 국가어항개발 사업 등이다. 이들 국가예산은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 등이 합심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지역구와 관계없이 전북 발전을 위한 미래산업, 현안사업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당을 뚝 들었기 때문이다. 평소 이 의원의 피지컬 AI·농업로봇·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 같은 사업을 강조해왔으며 시설농업로봇 실증기반, 첨단장비육종 등의 예산 확보에 매달려 왔다. 새만금 인프라 구축 사업도 주력했다. ▶▶2면에 계속 /권희성기자

